

〈 글로벌 IP 금융 컨퍼런스 〉

환영사

2018. 6. 29.(금)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I .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행사는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IP(Intellectual Property) 산업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IP 금융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양 기관 간 협업의 기회를 제안해주신
성윤모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을 비롯한
금융업계 관계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IP 금융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I. IP 금융의 중요성

내빈 여러분!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2016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2,790만개의 일자리와
GDP의 38%인 6.6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약 84%가

IP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4%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6년 기준, 1위 이스라엘(4.25%), 2위 한국(4.24%), 3위 스웨덴(3.25%), 4위 일본(3.14%)

** '16년 기준, 1위 미국(5.7만건), 2위 일본(4.5만건), 3위 중국(4.3만건) 4위 독일(1.8만건), 5위 한국(1.6만건)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 지불하는
지식재산 사용료가 발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되어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입니다.
당연히 지식재산권은 대출의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고,
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또한, IP거래시장이 충분치 않아
은행로서는 담보를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IP 금융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고,
인력·시스템 등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Ⅲ. IP 금융의 향후 방향

정부는 지난 5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력이 짧아 신용이력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일지라도,
다양한 동산을 활용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지닌 다양한 동산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성장성과 직결된 자산이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IP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IP투자, 담보대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평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Tech Credit Bureau : 기술신용평가社)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TCB 기술금융 평가 항목 :

(현행) 보유 IP 건수 → (개선) IP의 사업성, 거래가능성 등 가치

또한, 특허청과 협업하여,
보다 많은 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IP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P 가치평가 수행기관(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 :

현재 금융기관은 산은,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4개 기관 →
향후 신보, 기은, 여타 CB社,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 추진

둘째, 회수 리스크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식자산을 매입 및 관리하고
IP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성장사다리펀드는 IP 펀드 1,275억원, 기술금융투자펀드 1조100억원 운용중

셋째, 금융회사에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를 통해
다각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이 IP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 비중(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IP 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혜택도 강화*하여,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 *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대출금리(0.5%p할인) 등 우대('18.下), 은행권 요청이 있는 경우 IP 담보대출과 보증이 결합된 신규 우대상품 도입 추진

넷째,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 우수 IP 정보 등이 담긴
「기술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하고,

- * 재무중심의 기존 증권사 보고서와 기업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층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자본유치기회를 확대

우수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18.1월) : 상장요건을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테슬라 요건 활성화를 위한 풋백옵션 등 완화

IV. 맺음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IP)은
혁신성장의 큰 축입니다.

이 둘은 따로 추진되어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목표아래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융위와 특허청이 마음을 모아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컨퍼런스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유익한 논의들이
우리 IP 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IP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